

보도 시점 2026. 4. 22.(수) 10:00
(2026. 4. 22.(수) 석간) 배포 2026. 4. 21.(화) 14:00

과기정통부,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본격화

- 4. 22.(수), 관계 부처 합동 「전문인력 유치 지원 실무분과위원회」 개최

【관련 국정과제】 27.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4월 22일(수), 세종 청사에서 교육부, 법무부, 산업부 등 8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내 「전문인력 유치 지원 실무분과위원회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실무분과위원회는 인공지능·반도체·양자 등 첨단 분야를 둘러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,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.

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 「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」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사업(프로젝트)인 ‘브레인 투 코리아(Brain to Korea)’를 추진하고 있다. 이번 회의의 취지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, 전문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실무 협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①부처별 전문인력 유치 관련 추진 현황 공유, ②과학 기술 분야 세계 최정상급(톱티어) 비자 추진, ③해외 인재 유치 홍보 및 협조, ④국제 일괄(글로벌 원스톱)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 4개 안건을 논의하고, 전문인력 유치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이번 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전문인력 유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, 관계 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“국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**핵심 인재 확보**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” 라며, “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**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**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	책임자	과장	최미정 (044-202-4820)
		담당자	사무관	양준호 (044-202-4826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